



남원시 도통동, 사랑의 닭알 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 도통동은 지난 25일부터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한 가정방문으로 영양 결핍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가구를 발굴, 안부를 살피고 닭알을 나눔하는 사랑의 닭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갈치동 풍년농장에서 매일 무항생제 계란 20판을 후원받아 소외계층 10가구와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 입맛이 없는 아이들에게 삶은 계란을 영양간식으로 줄 수 있어서 매우 고맙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풍년농장 이상만 대표는 "도통동에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소년사 도통동장은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온정 넘치고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31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집중 점검

남원시는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1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관내 업체 점검은 남원시 위생부서, 공공급식담당부서, 축산부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식품접객업소는 위생부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 입출입 관련 운송차량 온도기 준(냉장·냉동) 준수 △소비(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조리시설 내 식품용 기구 등의 세척·살균 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음식물 재사용 △건강진단 실시, 등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대산면 의용소방대, 실종자 무사 구조

남원소방서는 대산면 의용소방대(대장 최양호)가 지난 30일, 관내 실종 치매어르신인 무사 귀가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자는 주생면 거주하는 A씨(75, 여)로, 29일 오전 6시경 주생면의 자녀집에서 외출 후 귀가 하지 않아 실종신고로 수색활동을 진행, A씨는 당일 오전 6시경 집 앞 큰길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 오전 8시경 남원시 대산면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이에 대산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무사 귀가를 돕기 위해 힘을 합쳐 어르신이 있을 만한 빈집 등을 집중적으로 살파는 등으로, 농수로에 빠져 있던 어르신을 의용소방대 부대장 운상열(58, 남), 총무부장 정성수(52, 남)대원이 발견해 무사히 구조해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도왔다. 대산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르신이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구조해서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산면장, 무더위 쉼터 경로당 현장 방문 점검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임 김명철 면장이 지난 26일부터 쌍문리 부평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53개 경로당 방문을 이어가며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당 순회 방문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부임 인사와 함께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하절기 재난안전 예방수칙 전달 등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르신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어르신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장 먼저 경로당을 방문해 주신 신임 면장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명철 금산면장은 "지역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면장의 소임"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 뵙고, 현안 문제와 애로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기자

다채롭고 풍성한 구성 관광객들 뜨거운 호응

제14회 진안고원 수박축제 · 제27회 동향면민의 날 성황리 개최

진안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 동향면 체련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4회 진안고원 수박축제 및 제27회 동향면민의 날"이 약 6000여명의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축제는 이를 동안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전시, 체육 경기 등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식전 공연에서는 농악대 풍물공연과 퓨전국악 이희정 밴드 공연, 동향초등학교 어린이합창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조봉열(문화체육장), 안창현(산업근로장), 송현주(애향장), 안경현(효열장), 한혜영(공익장)에 대한 면민의 장 수여식과 수박축제를 기념해 총 9명의 수박왕을 선발한 시상식이 열렸다. 또한 안호영 국회의원의 시상에는 안진호, 김영복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축제장에서는 수박판매, 수박왕 전시, 추억의 물품 및 사진전 전시 등 18개의 체험부스 운영과 수박·한우



등 지역특산물 판매가 진행됐으며 에어바운스(물놀이 풀장)를 마련해 휴가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특히 진안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진안 업체들로 구성된 푸드코너 운영으로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얼음맥주 부스 운영, 무료화채 시식 등으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자치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수산정책과 노규현 주무관'

전북특별자치도가 7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도전 주인공'으로 수산정책과 노규현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 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다. 7월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적극 행정 주인공'을 선정했다. 노 주무관은 기존 한정 어업면허를 가진 어업인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한정 어업면허를 가진 어업인들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해와 어업인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겪었다.

노 주무관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자료들



을 제공하고 현장 방문을 요청했으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법위인(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위한 법령해석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결국 법제처에 타당 취지의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받게 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대-하림그룹, 하림beSTAR 6기 발대식 공동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9일 대학본관 산학융합전용강의실에서 하림그룹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림beSTAR 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6년째 운영되고 있는 하림beSTAR는 하림그룹 및 계열사의 인력 수요와 적성을 고려해 본교 2학년 학생을 채용 예정자로 조기선발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적성에 따른 직무별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푸드&에그리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교육프로그램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하림그룹의 리더십 교육, 인성교육, 기업실무실습과 함께 직무별 전공 교육, 융합 교육 및 교양교육을 이수하고, 주전공 학위와는 별도로 산학 융합 전공 학위를 받게 된다. 현재까지 62명의 학생이 하림그룹 내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발된 하림beSTAR 6기 학생들의 발대식에는 하림그룹 유기호 전무와 전주대 권순태 교육부총장을 비롯 각 기관의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 진행됐다. 유기호 전무는 "하림beSTAR에 선발된 학생들은 미래의 하림 가족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자랑스런 인재



들"이라고 격려했다. 권순태 교육부총장은 "전주대와 하림그룹이 뜻을 함께해 운영하는 하림beSTAR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수퍼스타로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돕고, 나아가 기업과 사회에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이백면, 여름철 폭염 대비 살핌 행정력 집중

남원시 이백면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살피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백면에서는 7월 현재까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08가구를 방문 △홀몸노인 방역 서비스 제공 △청춘 물드림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비상연락망 부차 △어르신 생일밥상 차려주기 △부엌칼 갈아주기 △전열기구 점검 △후원 물품 전달 등 2,535건의 생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여름철 폭염을 대비, 방문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안내 △혈압 및 당 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수칙 안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내 △붕괴 위험 취약계층 가구 사전 점검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 입주 세방, 백미 기부 · 휠체어 배터리 지원

완주군 테크노밸리2산단에 입주하는 세방(주)(대표이사 최종일)이 완주군에 200여만원 상당의 백미 10kg 70포와 500만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지원했다. 30일 완주군을 방문한 세방(주), 세방이의순재단은 백미 기부와 함께 용진읍, 고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노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노후화된 전동차로 인해 언제 배터리가 방전될지 몰라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방(주) 관계자는 "정미와 폭염으로 취약계층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 생각되어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대 최소연 박사과정생,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복합치주 조직재생제 개발 연구

전북대학교 최소연 박사과정생(바이오나노융합공학과, 지도교수 김철생)이 202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 연구 장려금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은 박사과정생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연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최소연 박사과정생은 향후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장려금을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최소연 박사과정생은 '가시광 감응형 고탄성 하이드로겔과 생체 치주모사 마이크로 패터닝 멤브레인이 결합된 복합치주 조직재생제 개발'을 주제로 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접착성을 갖는 가시광 감응형 하이드로겔의 개발 및 치주인대세포의 효과적인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마이크로 패터닝 멤브레인을 결합한 복합치주 조직재생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연 박사과정생은 "이번 과제에 선정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준 김철생 지도교수님과 생체재료연구실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고창 해리농협 우렁이농법,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

전북 고창 해리농협이 도입한 우렁이농법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리농협은 2013년에 381헥타르(131농가)로 처음 우렁이농법을 시작해,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후 2024년에는 845헥타르(305농가)로 확대됐다. 이는 상하면 전체면적의 약 92%에 해당한다. 우렁이농법 지원 사업은 벼 재배를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렁이는 겨울철 땅속에서 폐사해 유기물로 환원되기 때문에, 토양 개량 효과를 통해 화학비료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 우렁이 농법은 친환경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영광원자력본부의 지원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됐다. 올해는 우렁이 구입비용으로 1억9,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업 첫해부터 현재까지 우렁이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회장 표상규씨(42)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이 필요하다. 우렁이 농법은 농약 사용을 줄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화학비료 사용 절감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한 고품질 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해리농협 김갑선 조합장은 "우렁이농법으로 수확된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3회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배 한궁대회 개최

순창군이 30일 장애인 체육관에서 '제3회 순창군지회장배 한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250여 명의 선수단과 내빈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으며, 군은 1,2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했다. 한궁은 표적판을 향해 왼손, 오른손 각 5회씩 한궁핀을 던져 합산 점수로 승패를 가리는 종목으로, 양손을 사용해 투구하기 때문에 좌우뇌의 균형적 발달, 오십견과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며 노인친화적인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번 한궁대회는 2022년에 시작해 올해로 세번째 열리는 행사로 순창군 내 11개 읍면별로 대표선수 5명씩(남자부 7명, 여자부 7명)참석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부 부근수는 인사말을 통해 "한궁대회를 준비하고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